

인터넷진흥원, 반드시 나주혁신도시로 와야

방통위원장 이전 재검토 발언에 나주시민들 분통

임성훈시장 “부적절 언행... 시·도민에 사과하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전이 예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잇따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이전 재검토 발언(광주일보 3월25일자 2면)에 나주시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나주시와 시민들은 이전 방안에 맞춰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찬물을 끼얹는다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이계철 방통통신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주혁신도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최근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자 임명(임명)의 고위 공직자는 이전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성훈 나주시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보낸 성명에서 “이 위원장의 발언은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규정하고 이위원장은 발언 취소와 함께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 시장은 또 “앞으로 확고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흔들림 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며 “이 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그르치는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과 관련, 윤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 위원이 ‘한국전력의 송배전 회사와 판매회사로 분리하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을 언급하는 등 나주 혁신도시를 둘러싼 부정적인 발언이 최근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현재 13개 기관이 착공을 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지난 4일 나주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직까지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로,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j@



발광다이오드로 국화 개화시기 조절

고품질 수출용 생산 적합

도농기원, 기술개발 성공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해 국화의 개화시기를 조절하는데 성공했다.

26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백열등을 이용해 꽃피는 시기를 조절했지만 LED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해 수출용 국화재배 농가에서 실증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백마’, ‘백산’, ‘신마’ 품종을 대상으로 한 농가 실증 실험 결과 LED를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80% 이상 절감되고 수명이 80배 정도 늘어났으며 개화시기 조절이 가능했다.

국화는 단일성 식물로서 특정 일장

(낮의 길이)보다 짧아지면 개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고품질의 국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낮의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

LED는 반도체 양극에 전압을 가해 발광하도록 하는 인공 광원 소자로 단일 광파장을 방출하는데 식물 생장에 필요한 파장대의 광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명보다 효율적이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LED가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수명이 길고 전력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며 “특히 LED 백색등은 측지 제기등 야간작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수출용 국화 생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 도초도서 간재미 축제 열린다

다음달 6~7일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풍부한 해역의 도초도에서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간재미 축제가 다음달 6일과 7일 이틀간 열린다.

이번 처음 개최하는 간재미 축제는 도초 화도항에서 지역사물 놀이를 시작으로 각종 요리대회 및 예술단체, 초청가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초도에는 광활한 백사장,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우도 등 수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 낙조의 일몰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있어 부드러운 봄철 간재미 맛과 함께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도초도와 연도교가 있는 비금도 하루남 백사장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낙조 332

호로 지정됐으며, 해변의 모습이 하트를 형상하고 있어 하트해변, 또는 사랑의 해변으로 불리고 있다.

도초도는 목포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과 차도선이 하루에 6회 운항하고 북항에서 차도선 6회 운항하고 송공항에서 차도선 2회가 운항하는 등 자가용 이용 교통망이 확충돼 있다.

또 축제기간 동안 목포~흑산간을 운항하는 쾌속여객선이 도초도 축제장에 바로 집안하게 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초도에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공무원과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회, 생활개선회 등의 단체들이 페이스, 스티로폼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화에도 나서고 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공공도서관 찾은 박준영 지사

아기를 나누고 있다.

박준영(오른쪽) 전남지사가 26일 김양수 장성 군수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책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남2 제공>

“완도 사후도·고마도에 철부도선 운항을”

주민 불편 호소... 접안부두 시설에 3억 필요

완도군 군의면 사후도와 고마도 주민들이 완도군과 목포지방항만청에 철부도선의 정기운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지방항만청에서는 정기항로 허가에 긍정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접안부두시설을 설치해야 돼 향후 예산 지원이 이뤄질 지가 관심이 될 전망이다.

26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김중식 완도군수의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 사후도와 고마도 주민들이 완도 전체적인 삶의 질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섬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차량과 사람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정기 선박편 마련을 강조했다.

모두 2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소형 선박으로 일일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불편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도에는 56세대 88명, 고마도에는 73세대 123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대표 강경열(66) 이장은 “남창과 원동을 연결하는 신완도대교는 대형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다리 밑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 완도군의 삶의 질은 크게 높

아졌다”며 “그러나 소외된 섬 주민들은 아직도 1970년대 수준의 교통수단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이장 등 주민대표단은 최근 목포지방항만청을 찾아 지역실정을 설명했으며, 항만청은 흑일도, 백일도 인근 도서 6개섬을 정기운항하는 정부 지원 새마을호 항로를 허가해주겠다고 약속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사후도와 고마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접안부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항만청의 입장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 벼농사 친환경 생태 모델화 추진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벼농사 친환경 생태농업의 모델화 사업을 추진한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26일 “올해 계곡면 신기리 일원에 친환경 생태 모델화 시범단지 15ha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직접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업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순수 군비 4200만원을 들여 돌봄 조성과 수생동식물 복원, 우렁이 농업 등을 다각도로 실천한다.

특히 지난 1980년대 경지정리와 합

계 사리간 돌봄 20여개를 논 가장자리에 10~15m, 깊이 1.5m로 복원해 미꾸라지와 붕어 등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실천을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모델화 단지 내 쌀은 단백질 함량을 6.5%로 낮추고 완전미율을 95%로 높여 최고급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녹비작물을 재배해 땅심을 높이고 농진청이 수입쌀에 대비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탈라이스 매뉴얼을 적용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신안 추포~암태·해남 화산~평호

도로공사 설계 6월 본격 착수

신안과 해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추포~암태, 화산~평호 도로 건설이 본격화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6일 “신안 추포~암태, 해남 화산~평호 도로공사의 설계를 오는 6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2개 구간은 2년여의 설계기간을 거친 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도 2호선 추포~암태 구간(1.4km)은 현재 도로 만들어진 바닷길로 만조시에는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삼태도, 하의도, 도초도, 비금도 등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의 섬을 연결하는 일주 도로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도 77호선 화산~평호 구간은 2008년에 개통된 해남 화산~가차 도로(L=4.3km)의 잔여구간 1.8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해남 송지면에서 화산면 구간이 20여분 단축되며 해남 땅끝마을과 해

추포~암태 구간



화산~평호 구간



안도로가 연결돼 새로운 관광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CJ 헬로비전 www.cjhelle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헬로넷 = SAVE 최대 56% 1588-3450

헬로넷 = 디지털 방송은 헬로tv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